



남구 장학재단 설립 추진

9월 발기인 대회... 이르면 내년 장학금 지급

뜻 있는 지역인사 추진위원 추가 모집 중

교육도시 남구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기금은 구정과 민간이 1대 1 방식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남구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23일 구정 5층 대회의실에서 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광역시 남구장학재단 발기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성재영 남구문화원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정량부 전 동의대총장과 박희두 성소병원장을 부위원장

로 선출했다.

또 공기와 부산교육대 명예교수와 박선자 남구여성단체협의회장을 실무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고 추진위원회 6명과 구 참여 실무위원 3명 등 모두 9명의 실무위원회도 구성했다.

장학기금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40억 원을 조성할 예정이지만 기금 규모는 조정 여지가 있다.

남구는 오는 9월 장학재단 설립 발기인대 회 열고 이르면 기금 수익이 발생하는 내년

부터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목표다.

성재영 추진위원장은 "남구장학재단은 4개 대학교와 52개의 초중고교가 밀집한 교육도시 남구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인 청소년에게 경제적 지원과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장학재단 설립에 참여 할 지역 인사들 모집하고 있다. 남구장학재단 참여 문의 : 총무과 ☎607-4103, 4105

남구 체육회 통합

생활체육·엘리트체육 통합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 남구체육회와 생활체육을 관장하는 남구생활체육회가 남구체육회로 통합됐다. 지난 1일 부경대학교 미래관 컨벤션홀에서 남구체육회 창립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를 갖고 통합 체육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초대회장으로 남구청장이 회장으로 추대되고 23개 회원종목단체를 산하조직으로 둔다. 양 체육단체는 올초부터 8명의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체육회 통합을 준비해 왔다. 이번 통합은 지난해 3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추진됐다.

통합 체육회 출범으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의 보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6기 후반기 맞은 이종철 남구청장

일류행복도시 남구 건설에 초심 지켜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들시기를 기원드립니다. 30만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민선6기 구청장으로 취임한지도 어느 듯 절반이 지났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년은 수많은 변화와 도전이 끊이지 않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유럽의 경기침체, 영국의 브렉시트(Brexit)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안과 함께 국내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과 계속되는 내수경기 침체로 서민경제가 힘들었듯이 구정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구민과 함께한 민선6기 전반기 구정 성과

하지만,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도 30만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남구는 동북아금융허브인 문현금융단지 부산국제금융센터 개소와 유엔평화기념관, 일제강제동원역사관 개관, 용호관 유람선 터미널 개소, 이가대 자연마당 조성, 대동골문화센터 건립 등 오랜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에는 오랜 구정의 걸림돌이었던 지방채 50억 4천만원의 전액 상환하였고 12월에는 국·시비 70억원과 구비 20억원, 총 90억원이 투입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실내빙상장 건립 사업 공모에 당선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남구는 6.25전쟁 60주년 사업유공 국무총리상 수상과 고용노동부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선정,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 5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중앙부처와 부산시 등 상급기관 평가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남구 실내빙상장 등 미래기반 구축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이제 민선6기 후반기도 저와 700여 남구공무원은 오직 30만 구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행복도시 남구』를 위해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지난해 8월 작곡한 문현금융단지 복합개발 2단계사업의 자립없는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백운포체육공원에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남구 실내빙상장 건립을 2017년 말까지 완료하고 대연동 현 민방위교육장에 민방위교육장을 포함한

구민과 함께한 민선6기 전반기 구정 성과

하지만,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도 30만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남구는 동북아금융허브인 문현금융단지 부산국제금융센터 개소와 유엔평화기념관, 일제강제동원역사관 개관, 용호관 유람선 터미널 개소, 이가대 자연마당 조성, 대동골문화센터 건립 등 오랜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에는 오랜 구정의 걸림돌이었던 지방채 50억 4천만원의 전액 상환하였고 12월에는 국·시비 70억원과 구비 20억원, 총 90억원이 투입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실내빙상장 건립 사업 공모에 당선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구민과 함께한 민선6기 전반기 구정 성과

하지만,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도 30만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남구는 동북아금융허브인 문현금융단지 부산국제금융센터 개소와 유엔평화기념관, 일제강제동원역사관 개관, 용호관 유람선 터미널 개소, 이가대 자연마당 조성, 대동골문화센터 건립 등 오랜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화된 남구 대표축제 육성

제20회를 맞는 오륙도축제는 대학교와 평화공원, UN기념공원, UN평화기념관, 일제강제동원역사관, 부산박물관 등과 연계하여 남구만의 특화된 오륙도 평화축제로 확대하고 남구문화원, 대동골문화센터, 감만창의문화촌 등 지역거점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구민의 문화생활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복지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

장애인 자활 직업훈련시설을 갖춘 남구장애인복지관 증축과 문현동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등 복지기반을 확충하고 최고의 복지행정인 좋은 일자리 창출과 용호골목시장 아카데미 2구간 설치 등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민선6기 후반기 소통하는 책임행정 구현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민선6기 후반기에도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으로 구정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드리며 구정발전을 위한 가장 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십시오. 700여 남구 공무원 모두는 30만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최고 가치로 삼고, 끊임없는 혁신과 창의적 사고로 구민과 소통하는 책임행정을 통해 '활기찬 도시 살기좋은 남구'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고층 갤러리

BIFC 63층전망대 미술전시회

BIFC(부산국제금융센터) 63층 전망대 무료 개방에 이어 BIFC 건물관리 회사인 부산파이낸스센터AMC가 지난 16일부터 전망대에서 부산·경남 지역작가들의 미술 전시회를 열고 있다. 두 달 가장 진행되는 미술전에는 지역작가 20명의 한국화, 서양화, 팝아트 등 작품 44점이 전시되어 있다.

미술전시회와 함께 테이블, 의자를 비치하고 커피, 녹차 등을 타 먹을 수 있는 무료 미니 카페도 운영 중이다. 부산파이낸스센터AMC 조영필 과장은 "이번 전시회는 남구 주민 외에도 여름 피서철을 맞아 부산을 찾는 외지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가 된다"고 말했다. 63층 전망대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오후 9시까지 무료 개방된다.



BIFC 63층 전망대에서 지난 16일부터 부산·경남 지역 작가들의 미술전시회를 열고 있다.

메타세콰이아 400그루 주고 떠난 '나무그늘' 같은 남구 공무원

홍순문 과장 인사발령 나면서 기증
9월말 백운포 등 관내 4곳에 이식

"아이고, 소문 내지 말라고 했는데...."
인사발령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된 남구의 간부 공무원이 고향에서 직접 키운 메타세콰이아 수백 그루를 남구에 기증해 화제다. 남구 주민에게 선물을 주고 간 주인공은 홍순문(사진) 전 공원녹지과장. 홍 과장은 이달 초 강서구청 공원녹지과장으로 발령났다.

백운포체육공원은 부산의 대표 체육시설임에도 땀별을 가려줄 나무 한 그루가 없어 불편하고 사막했다. 3년 6개월 남구의 공원녹지를 책임졌던 홍 과장은 이 점이 늘 안타까웠는데 이번 인사발령을 계기로 결심을 내렸다. 홍 과장이 기증한 메타세콰이아는 수령 10년 안팎의

400그루. 고향인 경남 함안에 주말마다 내려가 직접 가꾼 자식 같은 나무들은 조일정 가격으로 9,000만 원에 달한다. 홍 과장은 "대립자인 백운포체육공원은 볼때쯤이 좋지 않아 다른 나무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며 "생명력이 강하고 생장속도가 빠른 메타세콰이아가 숲을 이루 그늘을 만들면 참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구는 기증받은 나무를 백운포체육공원 내 야구장과 축구장 주변으로 211그루를 식재하고 나머지 189그루는 평화공원, 용호근린공원, 대연혁신지구 어린이공원, 문수사 진입도로 등 4곳에 나눠 심을 예정이다. 수목들이 안정적으로 뿌리 내리기 위해 이식 작업은 장마철과 한여름을 피해 오는 9월말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은 전남 담양의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길. 백운포 체육공원도 훗날 이런 풍경이 기대된다.

남구청, 안중근 의사 여동생 묘 정비

안성녀

용호동 천주교묘지 40년 방치

자료 없어 독립유공자 미지정

내달 중순 비석·봉분 등 정비

남구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 안성녀 여사의 묘를 정비하기로 했다.

남구는 안 여사의 유족과 함께 내달 중순 용호동 천주교묘지에 있는 묘에 비석을 새로 설치하고 봉분을 보수할 예정이다. 비문은 부산교대 공기와 명예교수(남구 향토사 연구위원)가 여사의 독립운동 행적 등을 추모의 글 형식으로 작성한다.

안 여사는 안중근 의사의 유일한 여동생으로 오빠 안 의사가 하얼빈 의거를 일으키자 일제의 보복을 피해 만주로 피신해 광복 직후까지 독립운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국가보훈처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인정 받지 못해 묘를 현충원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

안 여사의 손자인 권혁우(72·대연5동 거주) 광복회 부산지부 남부연합지회장은 "할머니가 언젠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으면 당당히 현충원으로 모실 생각이었다"며 "국가보훈처가 해야 할 일을 남구청에서 대신 나서 줘 늦게라도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용호동 천주교묘지묘지의 안성녀 의사 묘를 정비하기 위해 손자인 권혁우(맨 오른쪽) 광복회 부산지부 남부연합회 지회장과 공기도 명예교수가 안 여사의 묘를 살펴보고 있다.

안 여사는 6.25전쟁 발발로 인해 부산으로 내려 온 뒤 1964년 숙환으로 사망해 영도 청학동 인근에 묻혔다.

이후 묘지 자리에 부산체육고등학교가 들어서면서 1974년 유족들이 지금의 묘지로 옮겨왔다. 안 여사 묘는 머느리자지 권지회장의 어머니인 독립운동가 고(故) 오형선 여사(건국훈장 애국장)가 10여년 전 우연히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남구 관계자는 "안 여사가 독립유공자

지정이 안됐어도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임은 분명한 만큼 민족영웅의 가족을 더는 방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남구의 독립운동가' 6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 남구신문 기사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